

「칸디」思想研究,

自我로 超越하여 愛他主義에(제11회)

朴魯哲

(三) 『칸디』人格

『마하트마·칸디』의 全 人格으로 보면 此世에 匹儔가 업슬 만치 偉大한 精神의 所有者로서 凡聖에 지나치는 卓越한 眞理力을 把持한 超人으로 보게 된다. 宗教的 意味로는 『基督』 『釋迦』 『老子』 『마호맬』에 比肩할 수 잇스며 道德的 哲人에 잇서 서는 元曉, 圃隱, 花潭, 西山 『소크라테스』 『墨子』 『푸란씨스』 『톨스토이』에 比할 수 잇스며, 政治的 理想으로는 乙巴素, 金庾信, 李純信, 李珥 『링컨』 『칼러발러』 『비스莫』, 『웬손』 등에 比할 수 잇고 그 革命的 思想에 잇서 서는 全琿準, 洪景來, 『레닌』 『孫文』 등에 比할 수 잇스니 이러틋 그의 全 人格을 宗教的, 政治的, 道德的, 革命的의 多方面에 依하여 볼 수 잇는바, 그 실完全無缺한 眞人으로서의 支配階級의 罪惡을 徵討한 聖軍이며, 쏘는 弱小 民族의 前途를 啓示한 指道師라 할 수 잇다.

이리하여 『마하트마·칸디』의 人格을 單純이 宗教的 聖者로만 볼 수 업고, 一國家 社會의 指導者로만 볼 수 업고, 一民族의 革命歌로만 볼 수 업고 一時代的 道德家로만 볼 수도 업슬 것이다. 만일 『칸디』가 印度革命運動에 指導者가 되지 안했다. 假定하더라도 그는 응당 印度敎의 一聖者로서의 그 人格이 가장 高潔하엿슬 것이요. 쏘는 宗教的 聖者의 人格을 具有하지 안했다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印度民族運動의 頭角이 되엿슬 것이 아니라. 다시 나가 그는 응당 一哲人의 地位에 잇서서 그 道德이 가장 卓拔하엿슬 것이다. 이러틋 그는 多方面의 完全한 人格者로서, 一革命家인 『레닌』 『孫文』에만 比할 수 업고 一國家的 『링컨』 『웬손』에만 比할 수 업고 一宗教的 『基督』 『釋迦』에만 比할 수 업고 一道德家로서의 老子, 墨子 『소크라테스』 『톨스토이』에만 比할 수 업슬 것인가 한다. 이럼으로 現代에 잇서 世界人의 視線을 크게 注集한 偉人으로는 『마하트마·칸디』한 사람이 잇다고 본다. 이에 샤라 그 崇拜 熱은 『맑스』 『레닌』 『孫文』 以上으로 노파 젓다고 안 흘수 업게 되었다. 웨그

런고 하니 그의 全人格의 精神으로 보아 비단한 군대로만 偏重한 偉人이 아니라대서 그 意義가 잇슬 것이다. 이는 民族的 解放, 無產階級的 擴展, 社會革命的 鬪爭, 또는 宗教的 見地에 잇서 서도 그 崇拜熱이 圓滿한 所由로써이다. 그러나 『맑스』 『레닌』 『孫文』은 以上の 諸要素를 具有하였다고는 斷案을 내리지 못 하겠다. 일즉 紐育에 『에이에취·홀무스』란 유명한 牧師는 『싼디』를 評하되

『宗教的, 人種的 偏見을 超越하여 世界第一의 偉人으로 至誠, 勇氣, 高潔, 無妬, 熱情, 堅忍 等の 雄大한 精神力을 發揮한 人物이다』

라고 激讚한바도있다. 일즉 泰西諸家들이 『마하트마·싼디』를 評하여 宗教的 政治家 혹은 哲人的 革命家라함은 그 正論에 一理가 업지안타. 웨 그런고 하니 그 宗教的 政治家의 見地에 잇서 보면 그는 政圈에 들어가 宗教的 眞理 窟 『사티아·그라하』를 發見하였고 그 哲人的 政治家의 見地에 잇서보면 그는 宗教的 伽藍에 들어가 政治的 『빨시우-레지스탄트』를 發揮하였다고 본다. 諸家の 評과 가티 『싼디』는 장차 印度革命을 完成한다면 한걸음 나가 世界的 人類結合의 博愛平等主義의 使命을 확실히 질머졌다고 본다. 웨그런고 하니 그의 信念상 愛의 本營窟 『사티아·그라하』와 實行的 勝利의 劔 卽 『빨시우-레지스탄트』의 偉力이 능히 世界支配階級的의 既成勢力을 打倒하기에 洽足하다는 것이다.